

보도시점 2026. 9.22.(화) 08:00
< 9.22.(화) 석간 >

배포 2026. 9. 21.(월)

AI 시대, 기업과 산업의 미래를 위한 민간의 지혜를 모은다

- 산업통상부,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 공식 발족
- AI 시대 인재 재교육·양성,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기업 성과 활용 등
분과 회의 본격 개최, 연내 민간 주도 정책 제언서 마련

산업통상부(이하 ‘산업부’)는 9월 22일(화) 08시, 「AI와 기업의 미래 연구회」 발족식을 개최하였다.

지난 7월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의 후속으로 구성된 동 연구회는,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세계 경제의 판이 바뀌는 AI 혁명시대에 우리 기업과 산업이 어떻게 성과와 인재를 활용하여 더 큰 성장의 기반을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이를 정책 제언으로 만들기 위해 구성됐다.

연구회는 안동현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여, 이준영 성균관대 교수, 이상희 한국공학대 교수를 분과장으로 위촉하고 경제학, 경영학, 공학, 법학, 인재양성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다양하게 구성되었다.

이 날 발족식에서는 연구회의 출범 배경과 목표를 공유하고, 향후 연구회 운영 일정과 방식, 제언서 집필방향 등에 대해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첫째, AI 시대 우리 기업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둘째, AI 혁명에 맞는 인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셋째, 기업의 인재활용제도를 어떻게 AI 시대에 맞는 틀로 바꿔나갈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어 “속자(速者)생존 시대에 빠르고 유연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미래 산업을 준비해야 대한민국은 AI 시대를 선도하는 제조강국으로 남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 인력의 효율적 배치와 이동, 성과와 보상 등 AI 시대 노동의 개념 변화에 맞는 새로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AI 시대 기업의 성장과 미래를 위한 대응방안, AX 산업 확산과 인프라 구축, 인재 교육과 양성,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연구회는 앞으로 약 2개월간 집중 논의를 통해 민간 주도의 ‘정책 제언서’를 도출한 후, 노사·전문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산업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산업정책관 산업일자리혁신과	책임자	과 장	우성훈 (044-203-4220)
		담당자	사무관	김지은 (044-203-4222)



1. 행사 개요[안]

- (일시·장소) '26.9.22(화), 08:00 ~ 09:20, 한국프레스센터 매화홀(19F)
- (참석자) 차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원장, 연구회 위원장 및 위원 등
 - (산업부) 차관, 산업정책관
 - (KIAT) 원장, 산업혁신 부원장(연구회 총괄 간사)
 - (위원장) 안동현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 (분과장) [인력재교육·양성]이준영 교수(성균관대 화학공학·고분자공학부),
[유연안정성]이상희 교수(한국공학대 교양학부)
 - (분과위원) 경영학, 공학, 노동법, 인력양성 등 분야 전문가 11인

2. 주요일정[안]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8:00~08:05	5'	• 개회 및 기념촬영	참석자 전원
08:05~08:15	10'	• 인사말씀	산업부 차관 → KIAT 원장
08:15~08:20	5'	• 모두발언	연구회 위원장(안동현 서울대 교수)
08:20~08:40	20'	• 장내정리 및 조찬 진행	KIAT
		• 연구회 운영계획(안)	
08:40~09:20	40'	• 간담회	참석자 전원

* 위원장 모두발언까지 공개 → 이후 비공개 전환